

<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현대미술 강좌』>

2. 네오아방가르드와 가장 비싼 생존작가의 탄생

1. 네오아방가르드의 등장

20세기 초 다다가 예술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율성과 형식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주류 모더니즘에 반발했듯이,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와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는 그린버그가 주장한 미국식 형식주의 모더니즘 이론과 추상표현주의에 반발. 라우센버그와 존스는 삶과 예술의 간극을 보여주고, 나아가 삶과 예술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작품과 함께 등장했기에, 이들을 '부활한 다다'라는 의미로 네오 다다, 또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네오아방가르드라 부름.

2. 로버트 라우센버그

침묵도 음악일 수 있다고 주장한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라우센버그는 예술과 삶의 간극을 모든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음. 일상과 예술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작품 표면에 드러내고자 함. 또한 프랭크 스텔라나 위홀에게 영감을 주었음이 분명한 "나는 실제로 '그것'이 아닌데 '그것'처럼 보일 뿐인 작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작품 그대로 '그것'이길 원한다"라는 말과 함께 추상표현주의 공격.

3. 재스퍼 존스, 가장 비싼 생존 작가의 비밀

안료와 뜨거운 왁스를 섞어 만든 재료로 매혹적인 표면 생성. 깃발·티켓·숫자·글자와 같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의 이미지 차용. 존스의 작품은 이미지인 동시에 오브제image-as-object이며, 재현된 오브제와 재현 사이의 모순 관계에 대해 교묘하게 질문. 이렇게 작품 속에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고,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 누군가가 풀어주길 기다리며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수수께끼가 컬렉터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 미국인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성조기나 미국 지도 등을 다뤘다는 점도 한 몫.

4. 존스 작품의 의의

모더니즘의 형식을 버리지 않으면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입구를 열어줌. 존스는 다음 세대의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주요 비평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지적. 먼저, 영국의 비평가,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는 친근한 사물을 작품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팝아트에 미친 존스의 파급 효과를 언급. 로잘린 크라우스는 자신의 책 『현대 조각의 흐름』에서 "존스와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유일성, 프라이버시, 경험을 통한 접근 가능성을 앞당기는 작품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에게 미친 존스의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 철학자이자 비평가로도 활동한 아서 단토는 1996년에 모마에서 열린 회고전을 보고 「재스퍼 존스」라는 제목의 글 발표. 이 글에서 그는 재현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가 존스의 작품을 재기 넘치고 영리하며 열광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 덧붙여 그는 이런 모호한 경계가 존스를 모던과 컨템퍼러리 미술 사이의 접점, 즉 모던과 컨템퍼러리의 모호한 경계에 놓는 요소라며, 존스가 이 둘을 잇는 다리 구실을 해주었다고 설명.

5. 네오다다(Neo-Dada) 관련 주요 용어정리

네오 다다(또는 네오아방가르드)

새로운 다다라는 의미. 전후 시기에 고급미술을 지향하는 추상표현주의가 주류 미술로 자리를 잡으면서 일상의 삶과 예술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든 것. 그 계보는 조형미를 추구하는 기존 유럽 미술의 전통에 반기를 든 뒤상에서 비롯. 이후 예술에 대한 뒤상의 아이디어와 불교의 선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존 케이지가 1950년대 중반 추상표현주의에 반기를 들며 등장한 네오 다다의 중요한 스승 역할을 함.

다다(또는 다다이즘)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쾰리히에서 시작하여 파리 등으로 퍼짐)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미학(anti-aesthetic) 예술운동. 기존 조형예술의 전통에 반기를 들기 위한 운동. 조형예술(造形藝術)뿐만 아니라 넓게 문학·음악의 영역까지 포함. 다다란 본래 프랑스어(語)로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木馬)를 가리키는 말이나, 이것은 다다이즘의 본질에 뿌리를 둔 '무의미함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

아방가르드(Avant-garde)

넓은 의미로는 시대를 앞선 전위예술을 뜻함. 아방가르드란 군대용어로, 전투할 때 최전방에서 돌진하는 부대를 의미. 이후 예술에서 전위적이고 혁명적인 성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좁은 의미로는 다다이즘, 미래주의 등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등장한 기성예술에의 반항 정신을 내세운 일련의 예술운동을 지칭.

어셈블리지(assemblage, 불어로 아상블라주)

어셈블리지는 3 차원적인 콜라주.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이 자전거 바퀴를 작품으로 선보인 것(1913년)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음.

레디메이드(ready-made)

뒤상이 번기에 가짜 서명을 하고 전시에 선보인 <샘> (1917년)이라는 작품이 미술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대표적인 레디메이드. 뒤상의 이러한 작품들은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미술품으로 변용한다는 의미에서 레디메이드(ready-made) 또는 파운드오브제(Found Object)라는 용어를 사용. 비미술적인 오브제와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것.

오브제(Object)

일상생활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

*1부 뉴욕의 현대미술(1회~8회)은 『미술시장의 유혹(아트북스, 2007)』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